

한국기술교육대, ‘인공지능(AI)·로봇부터 고용정책까지’ 졸업연구작품 95점 선보인다

- 14~15일 제32회 졸업연구작품전시회·메카트로닉스·화학생명·경영·고용 분야 전시
- 재난 구조 드론·전기차 화재 대응 로봇·스마트 임플란트·AI 창업 입지 추천 등 실생활 문제 해결 ‘눈길’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오는 14일(수)부터 15일(목)까지 교내 담헌실학관 로비에서 「2026학년도 제32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가을학기)」를 개최한다.

한국기술교육대 졸업연구작품 전시회는 3~4학년 학생들이 전공 지식과 실습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사회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구현하는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메카트로닉스공학부 40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점, 경영학부 23점, 고용서비스정책학과 24점 등 총 95점의 졸업연구작품이 출품된다. 전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 전시회에서는 학부별 졸업연구작품 판넬과 우수작품 영상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재난·안전 분야의 로봇 기술부터 바이오·의료 소재, AI 기반 창업 지원, 고용정책 연구까지 각 전공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졸업연구작품이 소개된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이수용 학생 등 5명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RFID 기반 랩잭 전개식 질식소화 로봇’을 개발했다. 주차구역에 설치된 센서가 화재를 감지하면 로봇이 발화 위치를 전달받아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고, RFID를 통해 해당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뒤 질식소화포를 전개한다.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화재 차량을 신속하게 차폐해 주변 차량으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화학생명공학전공 임준하 학생 등 9명은 ‘지속 항균성을 갖는 골형성 촉진형 스마트 임플란트’를 선보인다. 임플란트 표면에 구리 기반 소재를 적용해 초기 항균 효과를 확보하고, 체내와 유사한 환경에서 표면 구조가 변화하도록 설계해 세포 친화성과 지속적인 항균 성능을 함께 높이려 했다.

경영학부 박태영 학생은 ‘지역 공실 기반 AI 입지 적합도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 입지 매칭 서비스’를 연구했다. 유동인구와 매출, 임대료, 접근성, 배후인구, 경쟁도 등 다양한 상권·공실 데이터를 종합해 입지 적합도를 분석하고, 창업자의 업종과 예산, 선호 조건에 적합한 입지를 AI로 추천하는 모델이다.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김지연 학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득 기반 체계 연구’를 수행했다.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를 기존 직종 중심 고용보험 체계가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 독일과 프랑스의 비정형 노동자 보호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소득과 노동 제공 관계를 반영한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유길상 총장은 “졸업연구작품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쌓은 전공 지식과 실습 역량을 실제 산업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적용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한국기술교육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 역량과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홍보팀	책임자	팀 장	황의택 (041-560-1680)
		담당자	담 당	김지수 (041-560-1681)
	교무팀	담당자	담 당	신준재 (044-202-0000)